

민간기업 에특자금 용자비율 10% 상향조정 요청

- 대한석유회회, 특별건의서 주요내용 -

대한석유회회는 최근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들에 대한 에특(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자금의 용자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조정하고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에특용자금은 제외해줄 것과 석유개발에 성공할 시 정부에 납부해야할 특별부담금을 경감해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한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정부에 제출한 '특별건의서'의 주요 내용이다.

◎ 민간기업에 대한 에특자금 용자비율 10% 상향조정

99년말 현재 국내 민간기업이 총 석유개발사업비의 75.2%를 투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방침(정유사 우대)과 같이 전문기업의 육성도 필요하나 여타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투자이익 촉진도 절실한 실정임.

특히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유사의 경우 정부의 우대 조치로 에특자금의 용자비율(탐사 및 개발사업, 생산유전 참여사업 등 전 부문)이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으나 다른 민간기업들은 한정된 자금으로 인한 지원 비율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고시에 의한 각 사업부문별 용자지원 비율을 10%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20% 우대지원 하는 정유사의 경우 '10% 이내 우대지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함<표 참조>

◎ 기업부채비율 산정시 에특용자금 제외

현재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외 기준조건으로 기업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에특자금을 용자받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석유개발사업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탐사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성공불용자' 용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 성공시에만 용자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자금액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민간기업들의 석유개발 투자 의욕 촉진과 사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 석유개발사업에 투자된 용자금은 전액 정부의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 신설기업에 대한 용자자금 지원대상 확대

현행 규정(석유개발사업자금 대출 및 관리규정)에 의거, 자금대출 신청시 신용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신설기업의 경우 과거 영업실적이 없음에 따른 대출자격의 결격사유로 아예 대출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관련규정 때문에 대출신청이 봉쇄되는 예로는 해외석유개발 운영을 위해 수개의 회사가 국내에 조인트 컴퍼니(Joint Company)를 설립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벤처사업의 일환으로 석유개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석유개발에 기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회사를 분리할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석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추구하는 신설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선을 요청.

◎ 특별부담금 경감조치 조속 시행

현행 사업 성공시 정부가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미 2년전부터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고시개정을 통해 특별부담금의 경감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고시개정 건의(안)

대상사업	용자비율(현행)	용자비율 개정(안)
탐사사업	(나)해의 ①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탐사사업은 탐사사업비의 70%(국내 콘소시엄으로 참여한 때에는 80%)이내 ② 국내기업이 운영권자가 아닌 탐사사업은 탐사사업비의 60%(국내 콘소시엄으로 참여한 때에는 70%)이내 ③ 공사는 100% ④ 석유정제업자는 20%이내 우대지원	(나)해의 ①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탐사사업은 탐사사업비의 80%(국내 콘소시엄으로 참여한 때에는 90%)이내 ② 국내기업이 운영권자가 아닌 탐사사업은 탐사사업비의 70%(국내 콘소시엄으로 참여한 때에는 80%)이내 ③ 좌동 ④ 석유정제업자는 10%이내 우대지원
개발사업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공사는 100% 이내) 석유정제업자는 20%이내 우대지원	개발사업비의 60% 이내 (좌동) 석유정제업자는 10%이내 우대지원
생산유전 참여사업	생산유전 참여사업비의 50% 이내 (공사는 100% 이내) 석유정제업자는 20%이내 우대지원	생산유전 참여사업비의 60% 이내 (좌동) 석유정제업자는 10%이내 우대지원

용어해설

• 플래시백(Flash Back)

플래시백(Flash Back)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재 묘사되고 있는 극 중 장면의 이전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흔히 회상 장면이라고 한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과거에는 플래시백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회상 장면이 있으면 스토리 진행이 늦어지고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네트르프르너(Netpreneur)

합성어로 '넷프르너(Netpreneur)' 'Cyber pioneer'라고도 한다. 최근 미국 대학에서의 인터넷 창업가를 가리키는 말로 생겨난 신조어다. 이들은 학벌과 지연으로 뚝뚝 몽친 기성의 구태를 거부하고 오직 아이디어로만 승부하는 닷컴 세대이다.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사이 누군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해 때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학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위가 여전히 높은 자산가치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는 인터넷 사업에서 얻게 될 폭발적 '기대수익'에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미국의 한 주간지는 98년 말 400인의 기업인을 선정하며 이중 58명(15%)이 대학중퇴 또는 고졸이라면서 벤처 때문에 생긴 미국의 학력파괴붐에 주목한 바 있다.

